

어린이책 들춰보기

나도 아빠처럼 될래요

보리 지음 / 신기영 그림

웅진 / A5 / 24면 / 2000원

무심히 먹는 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동이 배어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림책.

농촌 아이들의 경우, 씨를 뿌려 그것을 거두는 부모나 이웃의 생산현장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일'과 친숙하게 되는 반면, 도시아이들은 소비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이를 경계,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3-4세용.

생활속의 발명이야기

김영훈 지음 / 임성은 그림

지경사 / A5신 / 224면 / 2500원

영재만 담임인 윤호중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있다. 아이들의 기괴한 말에서도 발명의 힌트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것이 특허를 세계나 낸 윤선생님의 특기기 때문이다. 병원규가 감염될 염려가 없는 위생적인 양변기, 물때가 끼지 않는 주전자, 수세미가 붙은 고무장갑 등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생각해내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발명을 위한 과학적 사고를 이끌게 한다.

부력과 비중, 맹물은 끓어도 안 넘치는 이유, 중성세제로 먹물 만들기 등 생활속에 스며있는 과학적인 발견이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사건과 함께 엮어진다.

짜꿍을 책임져라

최승환 지음 / 최준식 그림

파랑새 / A5신 / 222면 / 2500원

한달 반장 한사랑과 강소영은 새학년 새학기에 새로 만난 짜꿍이다. 한사랑은 학급 전체를 평균 95점의 우수생으로 만들려는 선생님의 교육방침에 따라 진땀 흘리며 노력한다. '짜꿍을 책임'지기로 하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한사랑은 한 학년 동안 반장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짜꿍 강소영과 진실한 우정도 갖게 된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여유와 이해심, 학교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짜꿍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와 우정을 깊이 생각해 한다.

링컨의 일생

김병규 엮음

대원사 / A5신 / 216면 / 2500원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까지 올라 '남북을 통일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대기를 그린 책.

정규교육이라고는 6개월밖에 받은 적이 없지만 항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인격을 가꾸어나가면서 용기와 정직으로 자신 앞에 닥친 역경을 하나씩 이겨내 마침내 뜻을 이루고 마는 링컨의 생애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됨직하다.



떼굴떼굴 아기돌멩이

송혜선 지음 · 그림

한림출판사 / A5변형 / 32면 / 1800원

'엄마가 쓰고 그린 창작그림책' 13권 중 하나. 지난 '90서울도서전에 직접 만든 그림원화들을 출판하여 많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13명의 어머니들이 그때의 작품들을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 동화집은 올해 서른 세살로 두아이 엄마인 한 주부가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피아노도 잘치는 어린이로 자라나기보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쓰고 그린 것. 돌멩이를 어린이로 의인화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에는 좋은 친구가 참 많다는 것을 일러준다.

몽치몽치 사고몽치

김현욱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변형 / 124면 / 1800원

현경이는 외가집에서 산다. 아빠는 캐나다 출장근무 가시고 엄마는 학교선생님이신데 현경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이모들로부터 '사고몽치'라고 놀림을 받던 현경이는 어느새 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고, 주일학교의 신부님과 친하게 된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명과 기발한 장난으로 주위사람을 웃음짓게 하면서도 친구를 사랑하는 '사고몽치'의 순수한 마음이 때론 눈물짓게 한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현경이의 눈을 통해 본 어른들의 세계가 사랑스럽게 펼쳐진다.

뒤죽박죽 도깨비

보리 지음 / 김효순 그림

웅진 / A5 / 24면 / 2000원

어린이들에게 참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기도깨비 그림을 통해 들려주는 책.

'배'를 '등'이라 부르고 '입'을 '코'라 부르는 바람에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리고마는 아기도깨비의 행동을 통해 말이 사물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를 일깨워준다. 동시에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이 말을 바꾸어할 때 재롱삼아 그냥 넘겨버리지 않도록 일러준다. 어린이의 감성발달을 돕는 책으로 3-4세용.

전태일

위기철 지음

산하 / A5신 / 240면 / 3000원

70년대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감동적으로 엮은 위인전. 대통령이나 장군들의 업적만을 다뤘던 이제까지의 위인전과는 달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한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통해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던진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씨의 삶과 전태일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흩어져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생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항하며 분신하기까지의 삶이 감동적으로 그려 있다.